

말해볼시다는 경제·주목·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를 대한 독자들과의 대화를 대학주보사는 성심껏 응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과 후속을 기원합니다.

○월간료: 2000원 월간료 4~6매
○대외광고: 서울·충남(본인·본인)

하이텔(ID): jang3
천리안(ID): choahe

학내 공공질서의식 부재 'X세대'의 방향성 회복이 과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 20대들의 생각이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80년대의 학생들은 군사 정권에 대항해 '민주화'라는 드넓은 이상에 불타고, 이를 같이 이뤄내려 반해 90년대 문인 시대를 맞은 우리는 특별한 목적 없이 방황만 하는 것 같다. 방향성을 잃은 것이다. 이런 우리 세대를 가리켜 미국에서는 'X세대' 프람스에선 '불평등의 자' 한국에선 '신세대'라 부르고 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 한평생의, 할라코의, 3D현상 등 우리를 대변하는 말이 뜻한 바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 왜소하여 이런 세대를 대항할 수 없다는 자괴감과, 고대해 쓰러짐을 버리고, 새시기를 하고, 강문을 넘어 나가는 사나한 문과부터 각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외함으로써의 우리의 모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질서·의식, 최소한의 경외함으로써의 자부심을 모아 방향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노창호 (문리대 물리·3)

조혜란 (외대 영문·2)



이병하(마교·3)

목적의식 없는 들뜬 신입생들 대학자들의 의미 되새겨야

대학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자율적인 생활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신입생들은 흔히 자유의 방종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있어 대학생활의 자율성은 방종의 개념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입학후 몇몇 신입생들은 합격의 기쁨과 이젠 임시 포부로서의 해방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지금까지 두터운 목적의식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무질서한 생활에 빠져서서 그러한 생활에 속수무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자율성이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할나위없이 좋은 '자유'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왔다. 지금부터라도 그들은 '자유'의 의미를 심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자유'는 남다른 힘과, 고대해, 그들로 자신의 모습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자유'는 남다른 힘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자유'는 남다른 힘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신입생들은 더 이상의 방탕한 생활로 자유의 길을 두드려 할 것이 아니라 두터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한 무한한 노력으로 그 길을 더욱 넓히게 할 것이다. 우리 신입생들의 모습을 대변해 나가야 진정한 대학생활의 자율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진호 (영의·1)

민주화 뿌리에 흐르는 열사의 정신 5월의 민주화 의지 계승해야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월 중 평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 현실감각이나 순수주의에 있어 순수한 이념만이 백백 김주보이다. 반수 위라고 했다. 이쯤 우리 세대를 평가해보면 우리는 정말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념에서 비판받을 것만 계속하고, 백백은 정치가 현실에서 곧 역사라고 파악하는 거시적 안목의 소유자가, 객관적 영웅의 길을 걸었다.

우리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따온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89학번 이상과 90학번 이하의 세대이다. 세대는 또 91학번까지와 92학번이후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분석은 아니고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89학번까지의 선배들은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사회가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또 변화를 몸소 체험했다. 92학번부터는 그 기가 거의 없었다. 본인 스스로의 지열한 노력 없이만 있다. 이것은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문건정부를 맞이하기까지 학생 1백80명이상이 죽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속 변화하지만 정말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라는 나무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피의에 굴러간다.'라는 말도 있다. 2주일만 '민주화'는 몇몇처럼, 많은 청춘들이 사라져 갔다. 모두를 아는 예기일 것이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기쁜 나날을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멀리 보자는 것이다. 여마는 눈

이 아니고 속속히 젖어있는 눈으로 슬퍼할 줄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아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사회는, 지금의 사회는 끊임없이 죽어가고 피를 흘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많은 많은 비를 흘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청년학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창호 (문리대 물리·3)

조혜란 (외대 영문·2)

학고주변 혼탁한 술문화 만연 학원 주인의식과 책임감 결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학교 앞 상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학교 앞의 풍경을 자주 보고 듣게 된다. 그 풍경들 중에는 밤늦게 가발을 걸어 놓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있고 또 보니까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젠 본연 정반대의 시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다고,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朔風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대동사-사고 들은 과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국민인가 하는 의심이 내내 든다.

이 방송 매체를 통해 알려진 교육계 비리, 금융계 비리, 군 인사 비리, 세무 비리, 경찰 비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온통 비리 투성이다.

이런 비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 내 글썽에 누가 나?'는 속담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

한 정권은 '뒷물'이 많아 아랫물이 '뒷물'에 속해 발나 땀땀이 땀땀이 사건의 끝날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깊이 패해

지는 듯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우리 사회의 현주소만을 표출시켜 보여 줄 따름이 아니라 여전하다.

이러한 많은 비리를 중재시켜 줄 교육계가 버리는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한 나라의 장래를 물려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교육은 '百年之大計'이다. 앞으로는 우리의 운명은 교육이 책임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셋째로, 경건한 입지 부재에 이어 교육 평가의 답안지 유출 사건 등

책은물(?)속의 '百年之大計'

우를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교수, 장학생 등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를 골라주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교육자 인사들이 오히려 비리의 주역이었다나... 또한 비리를 부추기는 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다나...

결국 돈과 권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걸로는 명백한 채 속으로만 바나 있었다 밖에 볼 수 없다.

'물'은 고이만 써는다.

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고지어 준 속담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군부 통치가 이

나라 이 사회를 책에 만든 것이다.

우리 사회를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든 많은 비리 사건들-그 중에서 교육계의 비리는 국가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을 과하게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풀어 버린 한두를 깔로 깨끗이 도려내어 완전히 치유를 하는 의사들처럼 현 정권도 이러한 비리들을 남김없이 수집해야 할 해를해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교육계의 인사들, 즉 신랄한 다수의 패배(?)들의 명예 회복과 아울러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은 '百年之大計'이다.

(월 그리고 비)

우를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교수, 장학생 등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를 골라주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교육자 인사들이 오히려 비리의 주역이었다나... 또한 비리를 부추기는 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다나...

결국 돈과 권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걸로는 명백한 채 속으로만 바나 있었다 밖에 볼 수 없다.

'물'은 고이만 써는다.

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고지어 준 속담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군부 통치가 이

우를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교수, 장학생 등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를 골라주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교육자 인사들이 오히려 비리의 주역이었다나... 또한 비리를 부추기는 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다나...

결국 돈과 권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걸로는 명백한 채 속으로만 바나 있었다 밖에 볼 수 없다.

'물'은 고이만 써는다.

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고지어 준 속담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군부 통치가 이

우를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교수, 장학생 등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를 골라주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교육자 인사들이 오히려 비리의 주역이었다나... 또한 비리를 부추기는 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다나...

결국 돈과 권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걸로는 명백한 채 속으로만 바나 있었다 밖에 볼 수 없다.

'물'은 고이만 써는다.

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고지어 준 속담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군부 통치가 이

우를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교수, 장학생 등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이를 골라주고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교육자 인사들이 오히려 비리의 주역이었다나... 또한 비리를 부추기는 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다나...

결국 돈과 권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걸로는 명백한 채 속으로만 바나 있었다 밖에 볼 수 없다.

'물'은 고이만 써는다.

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고지어 준 속담이다.

지난 30여년 간의 군부 통치가 이



공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는 21세기 교통의 주역, 자기부상열차 개발... '아름다운 것'이다. 일단 대인 위에 열차를 띄워보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식감이 있었기에 우리는 파견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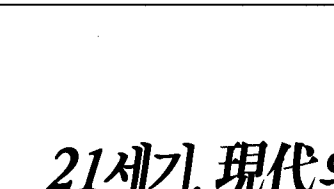
기원 본인과 자료만으로 시작된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은 부상과 추진은 물론 정위치 제동, 제동, 제동과 등 어느 한 분야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고사까지 자네 적도 있었으니까요.

8년여의 각고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제적으로 국산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을 성공했습니다.

90 대전 EXPO에서 레이크에 직접 탑승할 수 있게 된 최고속 150km/h의 현대 자기부상열차-순수 우리 기술로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실험용 열차로, 지금, 국내기 내 시속 400km 세계 제일의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더욱 뜨겁습니다.

21세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만든 '꿈의 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



공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는 21세기 교통의 주역, 자기부상열차 개발... '아름다운 것'이다. 일단 대인 위에 열차를 띄워보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식감이 있었기에 우리는 파견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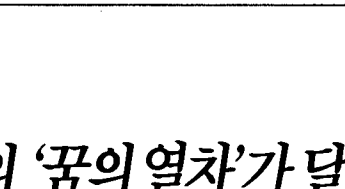
기원 본인과 자료만으로 시작된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은 부상과 추진은 물론 정위치 제동, 제동, 제동과 등 어느 한 분야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고사까지 자네 적도 있었으니까요.

8년여의 각고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제적으로 국산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을 성공했습니다.

90 대전 EXPO에서 레이크에 직접 탑승할 수 있게 된 최고속 150km/h의 현대 자기부상열차-순수 우리 기술로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실험용 열차로, 지금, 국내기 내 시속 400km 세계 제일의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더욱 뜨겁습니다.

21세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만든 '꿈의 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



공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는 21세기 교통의 주역, 자기부상열차 개발... '아름다운 것'이다. 일단 대인 위에 열차를 띄워보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식감이 있었기에 우리는 파견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 본인과 자료만으로 시작된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은 부상과 추진은 물론 정위치 제동, 제동, 제동과 등 어느 한 분야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고사까지 자네 적도 있었으니까요.

8년여의 각고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제적으로 국산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을 성공했습니다.

90 대전 EXPO에서 레이크에 직접 탑승할 수 있게 된 최고속 150km/h의 현대 자기부상열차-순수 우리 기술로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실험용 열차로, 지금, 국내기 내 시속 400km 세계 제일의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더욱 뜨겁습니다.

21세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만든 '꿈의 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

△서울캠퍼스 한국 대학생선교회(C.C.C.)는 오는 12일 오후 4시30분 공대생정착실에서 '제14회 캠퍼스 라이프'를 개최한다.

C.C.C.의 '캠퍼스 라이프'는 매년 대동계기간에 대학문화선도와 캠퍼스 복원화를 위해 마련되는 행사로 올해에는 가수 유희주씨를 초청하여 '하얀수선' '유희주' 등의 노래를 대요곡 공연과 C.C.C.에서 준비한 캠퍼스 'Hands'의 상연이 있을 예정이다.

△중문학과 학생회는 지난 17일 중국어청력학의 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을 설치했다.

중문학과는 학생회로 TV, VTR, VHS를 갖추어 홍콩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문학과 정보와 중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사회학과대학 동문회 '열두마당'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사회대 잔디밭에서 풍물강습회를 열 예정이다.

열두마당은 이번 강습회를 가락언어와 민요배우기, 사물놀이, 궁중음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학생회와 과의 동아리사이의 연계를 높이고자 한다.

△산업관리 디자인 공모전 준비를 위한 산업디자인학과, 소모임, KID(Kyung Hee Industrial Design)는 경희대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확고히 하고 교육의 조형성 조형물과 KID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작품을 위해 화원을 모집한다.

△수원캠퍼스 사회문화 동아리 '동대'는 오는 5월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서울랜드에서 마미방지를 위한 이음표 달아 날기, 사회공공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한성'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 사업회)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수원 캠퍼스 동아리 '홍사'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런 세미나는 갑오년전정전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우리대학의 현실과 대안, 통일논점에 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한성'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 사업회)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수원 캠퍼스 동아리 '홍사'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런 세미나는 갑오년전정전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우리대학의 현실과 대안, 통일논점에 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한성'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 사업회)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수원 캠퍼스 동아리 '홍사'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런 세미나는 갑오년전정전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우리대학의 현실과 대안, 통일논점에 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산고 체육대회

【서울캠퍼스】△학생선교회(C.C.C.)는 오는 12일 오후 4시30분 공대생정착실에서 '제14회 캠퍼스 라이프'를 개최한다.

C.C.C.의 '캠퍼스 라이프'는 매년 대동계기간에 대학문화선도와 캠퍼스 복원화를 위해 마련되는 행사로 올해에는 가수 유희주씨를 초청하여 '하얀수선' '유희주' 등의 노래를 대요곡 공연과 C.C.C.에서 준비한 캠퍼스 'Hands'의 상연이 있을 예정이다.

△중문학과 학생회는 지난 17일 중국어청력학의 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을 설치했다.

중문학과는 학생회로 TV, VTR, VHS를 갖추어 홍콩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문학과 정보와 중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사회학과대학 동문회 '열두마당'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사회대 잔디밭에서 풍물강습회를 열 예정이다.

열두마당은 이번 강습회를 가락언어와 민요배우기, 사물놀이, 궁중음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학생회와 과의 동아리사이의 연계를 높이고자 한다.

△산업관리 디자인 공모전 준비를 위한 산업디자인학과, 소모임, KID(Kyung Hee Industrial Design)는 경희대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확고히 하고 교육의 조형성 조형물과 KID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작품을 위해 화원을 모집한다.

△수원캠퍼스 사회문화 동아리 '동대'는 오는 5월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서울랜드에서 마미방지를 위한 이음표 달아 날기, 사회공공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울캠퍼스 동아리 '한성'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 사업회)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수원 캠퍼스 동아리 '홍사'에서는 오는 3월 5시30분(5월)과 체육대회(5월)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런 세미나는 갑오년전정전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며 우리대학의 현실과 대안, 통일논점에 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21세기를 위한 현대의 첨단기술 - 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대교

21세기를 위한 현대의 첨단기술 - 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대교

